

2021년도 주요업무계획

2021. 2.



목 차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 . 2020년 주요성과 및 평가 | 1 |
| II .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 | 4 |
| III . 2021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 | 6 |
| 1. 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 | 7 |
| 2. 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 | 13 |
| 3. 삶을 중요롭게 하는 문화유산 | 19 |
| 4.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 | 23 |
| ※ 문화유산 현장 코로나 대응 역량 강화 | 28 |

1. 주요 성과

[1] 문화유산 미래역량 강화

□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문화유산 관리체계 기반마련

- '문화유산 현장' 개정(12월)으로 다양한 가치(활용·공동체 등)를 반영하고,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을 위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* 실시

* ('20.) 대구·경북·강원지역 2.6만건 실시 / ('21.~'24.) 14개 광역자치단체 조사

- 문화유산 연구개발 기본계획('21~'25)을 수립, 문화재산업 발전 토대 마련

□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의 불편은 덜고 지원은 확대

-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불편 경감

* (조정) '15~'20년 1,300건 / (효과) '개별심의구역' 13% 감소, 규제완화 면적 20% 증가

-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지원을 민간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

* ('19.) 230건, 5.8억 → ('20.) 411건, 14.2억(지원건수 78%, 지원액 145% 증가)

□ 진입장벽 해소와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문화재산업 경쟁력 제고

- 문화재 매매업 자격요건 및 문화재 수리업 등록요건 완화

* 매매업 자격(1년 이상 전공 → 전공과목 이수), 수리업 등록(기술자 1명 요건 폐기)

- 문화재정보 제공 서비스 확대로 문화재산업 민간분야 콘텐츠로 활용

* GIS 원본자료 15만건(최초), 공공데이터 101종('19년 79종), 3D 데이터(민간활용 5,554건)

[2] 포용하고 함께하는 문화유산 향유

□ 안전한 문화유산 향유를 위해 새로운 방식 도입(대면·비대면 혼용)

- 전통과 신기술이 어우러진 궁중문화축전 및 궁궐체험 행사 진행

* (비대면 프로그램) 39개, 조회 667만회 / (대면 프로그램) 21개, 관람 2.7만명

- 지역문화재 활용을 확대하여 문화향유권의 지역균형 제고

* ('19.) 290개소, 340만명 → ('20.) 385개소, 202만명(오프라인 152만명, 온라인 50만명)

- 문화유산 마음치유 콘텐츠 제공으로 코로나로 지친 국민 위로
 - 무형유산 영상(온라인 공개) 및 교육웹서비스(문화유산채널 송출) 제공
 - * 명주짜기(조회 235만), 전통부채 만드는 장인(조회 162만), 웹서비스(896편/ 조회 35백만)
- 지역과 연계한 거점형 문화재 관광콘텐츠 제공(51만명 관람, 120개국 송출)
 - 세계유산축전(3건), KOREA on Stage(3회), 조선왕릉문화제(7곳) 첫 개최

(3) 굳건한 문화유산 보존·전승

- 첨단기술과 결합된 재난예방과 현장중심의 수리체계 마련
 - 재난안전 분야에 '드론기술(경주 남산)' 및 'ICT 시스템(진주성 등 50곳)'을 도입하고, 상시적 문화재 관리를 위해 돌봄사업을 확대(7,587→8,126개소)
 - 국가지정문화재 수리시 청장의 설계승인 의무화(12월) 및 문화재 수리 의무 감리대상 확대(지정문화재 3억원→1억원, 주변정비 5억원→3억원)
- 낙후된 역사도시 보존·정비·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('20.6.9.)
 - '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' 및 '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' 제정으로 다양한 역사도시(가야·풍납토성 등) 지원 제도 마련
- 무형문화재 맞춤형 지원으로 코로나로 악화된 전승환경 극복
 - 전승종목·보유자를 충원*하고, 노령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(21명)
 - * (신규종목 지정) '인삼재배' 등 3종목, (보유자 인정) '판소리' 등 2종목 8명
 - 전승취약종목지원금 조기지급(9월, 2.5억) 및 전승활동장려금 지원을 확대(104→148명)하고, 문화예술교육사를 전수교육관에 신규 배치(46개소, 53명)

(4) 세계 속에 당당한 우리 문화유산

- 세계유산 등재* 및 「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」 당선(9월)으로 국제위상 강화
 - '한국의 탈춤' 등재신청서 제출(2월) 및 '연등회' 인류무형유산 등재(12월)
- 문화재 ODA를 확대(라오스·미얀마·우즈베크)하고, 국외문화재 환수* 증대
 - 고려나전칠기, 효종 어보 등 343점 환수(전년대비 11% 증가/협상·매입 등)
- 비무장지대(DMZ)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
 - 현지 실태조사(7회)를 실시하고 'DMZ 세계유산 등재지원법' 발의(6월)

2. 평가 및 반성

(1)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·전승 체계 구축 미흡

- 신규지정 문화재의 방재시설 공백기간을 매우고, 첨단기술 접목한 재난 현장 초기대응 시범사업을 전국 문화재로 확산적용 필요
- 무형문화재 전승자 고령화와 전승자 부재종목 증원 미흡으로 원만한 세대교체가 지연되고 있고, 비대면 전승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책 부족
* 보유자 171명의 평균연령 73.6세(70세 이상 70.3%, 80세 이상 26%)

(2) 정책환경 급변에 대한 체계적 정책방향 정립 부족

- 코로나 수요에 부응한 디지털 서비스를 다방면으로 제공하였으나, 유무형·교육주제·공연별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한 콘텐츠는 부족
-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를 지역별로 실시하고 있으나, 자연유산·해양유산 등 새로운 정책대상에 대한 법·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취약

(3)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문화유산 향유사업 추진 제약

- 문화재 활용사업을 비대면 향유콘텐츠를 개발·제공하는 방식으로 상당부분 전환하였으나, 선제적·종합적 대응능력 제고 필요
- 내외국인 대상 관광활성화를 위해 '문화유산 관광캠페인' 및 '조선왕릉문화제'를 처음 개최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사업축소 불가피

(4) 남북관계 경색과 국제협력 제한으로 국제역량 강화 미흡

- 당초 계획했던 남북 협력사업이 상당부분 축소·지연되었고,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여건 개선을 위한 정보력과 우호적 환경조성 미흡
- 국가간 갈등을 유발하는 세계유산을 둘러싼 정책 등과 관련하여, 영향력 있는 국제 협력기구 및 국제연구센터(국내소재) 육성 필요

II 정책 추진 여건 및 대응방향

1. 정책추진 여건

-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응하는 문화유산 향유방향 정립 요구
 -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·비대면 수요가 증가하고 국제관광수요 급감
 - * 인식조사(한국리서치, '20.9월): 외출·모임·다중시설 자제 경향(그렇다 90% 이상)
 - 코로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공간으로 역사문화유산 활용가능성 부각
 - * 여행실태(경기연구원, 2020) : 코로나 발생 이후 관광활동(자연·풍경 감상 70%)
 - 사회적 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요구 증대

- 60년간 유지되어온 문화유산 보존·관리체계의 근본적 변환 요구
 - 첨단기술과 디지털 기술을 문화유산 분야에 전면 도입하여, 보존·관리방식의 대전환을 구현하는 것이 시대적 방향이라는 주장 대두
 - 새로운 영역(수중문화재·자연유산 등)의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정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와 문화재를 개발의 걸림돌로 여기는 견해가 공존
 - 문화재 보존·관리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국민불편 해소 요구 증가

- 문화유산의 사회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대한 공감대 확산
 - 문화유산이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(그린 뉴딜 등) 분야의 원천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 증대
 -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원천정보 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달라는 민간요구 충족 필요

- 문화유산분야 '국제역량 강화'와 '한류확산'에 대한 기대감 상승
 - '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국'으로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 증대, 수원국 국가개발과 연계한 ODA사업 추진 등 선도적 역할에 대한 기대 상승
 - 한류 원천인 전통문화와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요구 증가

2. 대응 방향

- 문화유산을 치유·여가공간으로서 활용하여 풍요로운 삶 실현
 - 비대면 문화유산 공연·전시·체험 콘텐츠를 다양한 형태로 개발·보급하고, 로봇해설사 도입 등 비대면 관람서비스 개발 가속화
 - 역사문화공간(왕릉 숲, 명승 옛길 등)을 국민들의 '자연쉼터'로 활용하고, 취약계층별(장애인·아동·노인·다문화가정) 맞춤형 향유서비스 제공

- 혁신기술을 접목하여 새로운 문화유산 보존·관리방식으로 대전환
 - 첨단기술을 통해 문화재 안전·방재체계의 시공간 제약을 극복하고, 관리·수리·복원방식의 과학적 체계구축을 위한 디지털 대전환 구현
 - 자연·해양·근대유산에 대한 DB 구축과 법제화를 추진하고, 문화재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내실화(손실보상 확대, 복리증진 등)

- 문화유산을 관광·교육·산업분야의 미래 동력자원으로 육성
 - 과학적·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연구개발(R&D) 비중을 높이고, 문화재 진단·보수·복원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신기술 개발로 산업발전 모색
 - 디지털 원형데이터를 구축하여 문화재 보존·관리·재현에 활용하고, 다양한 분야(교육·관광·산업)로 파급 되도록 원천정보를 민간에 제공

- 우리 유산의 세계위상 강화와 보편적 가치 확산 체계 마련
 - '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'와 한-아세안 협력기구' 설립 추진으로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, 맞춤형 ODA 사업으로 수원국의 호응 유도
 - 외국인을 대상으로 K-무형유산 공연 기회를 확대하고, 우리가 보유한 세계유산을 해당지역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

Ⅲ

2021년도 주요정책 추진계획

비
전

문화재정책 60년,
국민과 함께 가꾸고 누리는 문화유산

방
향

◆혁신성장 ◆보존·전승 ◆포용·상생 ◆개방·협력

주
요
과
제

문화유산의
미래가치 창출

- 문화재행정 60년, 정책추진체계 고도화
-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산업화 기반 마련
-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
- 문화유산 분야 녹색 인프라 구축

문화유산의
온전한 보존과 전승

-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
-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
- 첨단기술과 현장 기반의 문화재 안전·방재 체계 강화
-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

삶을 풍요롭게 하는
문화유산

- 자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
-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
-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
-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

세계와 함께 누리는
우리 유산

- 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 강화
-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
-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

① 문화재행정 60년, 정책추진체계 고도화

□ 문화재 보편적 가치 확산, 문화재 보호체계 및 문화재정책 재정립

- (지정번호제도 운영 개선) 지정번호가 문화재를 서열화하는 사회적 인식, 잦은 변경 요구와 논쟁 불식을 위해 문화재 관리번호로 운영 개선
 - 전문가 토론회 개최, 문화재위원회 보고 등 필요성·타당성 확보 노력
 - * (단기) 공문서·누리집 등 지정번호 사용 제한 / (중장기) 교과서·도로표지판·문화재안내판 등 지정번호 사용 중지·삭제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
- (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) 비지정문화재까지 포함한 역사문화자원 전수조사*, 포괄적 보호체계 도입을 위한 법·제도적 보호·활동 기반 마련
 - * 서울·경기·인천지역 역사문화자원 조사 및 DB 구축(2차년도 60억원)(총5년)
- (문화재정책 재정립) 문화재행정 60년을 맞아, 지난 60년간 주요실적 변화추이 분석*을 통해 향후 문화재정책 방향 재정립 기초자료 확보
 - * 유형별 문화재 지정·등록, 문화재 범위, 보존원칙, 조직·인력, 제도 등 데이터 조사분석 등

□ 자연유산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한 보호체계 확립

- (제도 정비) 개인·단체가 보관 중인 천연기념물 화석의 국가 귀속*과 DB 구축**을 추진하고 비지정 지질유산 분포지도(GIS) 완비
 - * 총 12,000여점 내외(추정), 'DB 구축 후 박물관간 순환 전시·정보 공유 등 지원
 - ** 유존지역 정보 현행화 및 화석·암석 유물정보(DB) 통합관리·개방
- (인프라 구축) 자연유산의 연구·전시·DB관리 등 총괄 연구기관으로서 국립자연유산원 건립 추진 (추진단 구성 및 타당성 조사/'21년)
- (자연유산 생태계 회복) 천연기념물이 자생가능한 생태계를 조성*하고 재해 등으로부터 구조된 천연기념물을 동물원에서 재할·훈련·공개**
 - * 서식지(11곳), 도래지(6곳), 번식지(14곳) 대상 하천정비, 습지조성 등 서식지 기능 회복
 - ** ('21년) 전주동물원 내 천연기념물 보존관 건립, 추후 전국 동물원으로 확대 추진
- (전통조경 육성) 전통조경 보존·관리·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통조경 모델·복원정비기준을 개발·보급하고, 전통조경자원센터* 건립 추진
 - * ('21년) 기반시설 정비 → ('22~'23년) 센터 조성 → ('24년~) 전통식물 생산·연구 수행

□ 근현대유산 맞춤형 보호체계 마련 및 다양성 확보

- (기반강화)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사업기반 강화와 경관정비, 근대 교육시설 보존·활용 방안* 마련 등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
 - * 구조별 내진보강·에너지효율 향상 방안 등 (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과 연계)
- (가치 발굴·확산) 위생보건*·항일독립·미군기지 등 다양한 근현대 문화유산을 조사·발굴하여 문화재의 다양성 확보 및 가치 확산
 - * 코로나19로 위생·보건의 중요성 부각, 치료기기 등 관련 문화재 발굴 확대
 - (용산미군기지) 시설물 조사(440여개동), 학술·기술연구 등을 통해 역사성·상징성·건축사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존방안 검토
 - (등록문화재) 제도 도입 20년 계기, 근현대유물 특별전*, 기념행사 등을 통해 등록문화재의 관광자원으로서 역할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
 - * 근현대유물 특별전('21.상/2억원), 등록문화재제도 20주년 기념행사('21.하/1억원)
- (민속마을) 다양한 모습의 민속마을* 발굴·지정과 보호 수준 재설정**, 무허가 건축물 정비 등을 통해 민속마을의 진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
 - * 건조물·반가 위주의 민속마을 중심에서 탈피, 다양한 민속문화 및 역사성 고려
 - ** 핵심가치는 보호하고 주변은 완화하는 합리적 「등록민속문화재(가칭)」 도입 기반 마련

□ 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 및 인프라 구축

- (수중문화재 전문성 제고) 첨단기술을 이용한 수중문화재 조사(탐사, 발굴) 고도화,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* 개발 및 관련 강좌 개설 등 추진
 - * 국내 교육기관과 협동 연구를 통해 수중문화재 조사 교육프로그램 개발
- (해양문화유산 발굴) 섬·해양과 관련된 문화유산의 기록화*, 전통 한선(韓船)** 및 조선장(造船匠) 연구, 조운문화·관방유적 조사·연구 등 확대
 - * ('20.~'21년) 보령 원산도, ('21.~'22년) 인천 덕적도
 - ** ('19.~'21년) 십이동파도선·판옥선 구조·복원 연구, ('21.~'23년) 완도선 복원 연구
- (해양문화유산 가치확산) 해양문화유산 저변 확대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각종 전시·교육·체험프로그램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
 - * (전시) '바닷속 보물을 찾아서', '바다에서 나온 발우' / (체험) 시각장애인 촉각 해설서 제작·보급 / (교육) 생애주기별 해양문화유산 평생교육(3~11월, 목포·태안)
- (인프라 구축) 지역균형 발전과 한반도 해양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권역별* 연구·조사 기반 조성 및 전시·교육 서비스 시설** 확충 등
 - * 전라권, 충청권, 남해권, 제주권, 경기권, 동해권
 - ** 해양문화유산 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('21년)

2 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산업화 기반 마련

□ 문화유산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(R&D)

- (기반마련) 문화유산 연구개발의 체계적·안정적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* 수행, 운영체계 및 운영지침 마련** 등 토대 구축
 - * 문화유산산업의 정의·범위, 중장기 기본계획, 법안 마련 등(1억원)
 - ** 「R&D 연구개발심의위원회」 구성(1월), 「문화재청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」 제정(3월)
- (기술개발) 첨단과학기술 기업·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해 문화유산 스마트 보존·활용 기술 개발로 문화재산업 발전 모색(11개 기술*, 79억원)
 - * (진단·분석) 동산문화재 방사선 진단, 대면적문화재 입체 진단, (재해·재난 대응) 방사선 훈증, 흰개미 원격 모니터링, (디지털 트윈) 기가픽셀 3D 데이터 생성, 건축 자동 CAD 도면화, 마을·도시 단위 H-BIM 초연결
- (신산업육성) 기존의 순수학술연구 중심의 연구 목표·방법을 탈피, 산업기술 개발을 통한 문화유산의 새로운 과학적·산업적 가치 창출
 - * (기존) (일반 R&D) 조사 및 기초연구, 정책수립의 기초근거, 문화유산 가치 규명 (향후) (주요 R&D) 응용 및 기술개발, 정책활용향유권 증진, 문화유산 산업성장 동력

□ 전통 재료·소재 분야의 산업화 기반 구축

- (협력체계 구축) “문화재청·연구소·전통문화대”의 유기적 협력*으로 전통소재산업을 활성화하여 전통재료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 확보
 - * (청) 전통재료 산업 실태조사, 맞춤형 지원 등, (연구소) 단절된 전통재료 제법 규명 및 품질 개선 연구, (전통문화대) 전통소재 품질기준 및 생산기반 연구 등
- (전통재료 수요창출) 전통단청사업* 등 시범사업을 통해 수리·복원용 전통재료 수요를 창출하고, 표준시방서·품셈 등을 마련·실시
 - * ('18.~'19년) 3건(4.8억원) → ('20년) 8건(23.3억원), → ('21년) 10여건(35.6억원), 표준시방서 개선 → ('22년~) 표준품셈 고시 및 기술교범 발간
- (안정적 재료공급) 전통재료 비축공급을 위한 '문화재수리재료센터' 건립
 - * ('19~'23년) 총 339억원 / ('21년) 토지매입 등 60억원

□ 문화유산 산업 활성화 지원 토대 마련

- (자본지원 기반) '문화유산 펀드'신설 및 금융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·외 사례조사 등 현황 파악으로 펀드 운영기반 마련
- (산업기반 구축) 문화유산산업 분류체계 수립, 국가승인 통계 반영 추진, 산업진흥 근거 마련 등 문화유산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

3 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

□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

- (보존관리업무 고도화) BIM 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*, 드론 등을 활용한 사적지 등 국유문화재** 및 궁능*** 내 문화재·시설물 관리
 - * ('21~25년) 수리이력 통합 구축, ('21년) 25건 50억원
 - ** (~'25년) 총 513건(약166km) 드론영상 촬영, 지적측량, 공간정보 구축 / '21년 35건 7억원
 - *** ('21년) 실측데이터 확보, ('22년) 시스템 구축, ('23년~) 보수대상 조사 및 안전점검 적용
- (문화유산 디지털 트윈) 문화유산 조사·연구·보존·모니터링·활용 등에 디지털 트윈* 기술을 접목, 데이터 기반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확립**
 - * 가상공간에 현실공간·사물의 쌍둥이(Twin) 구현 → 시뮬레이션 통해 현실분석 예측
 - ** ('20년) 개념설계, ('21~'22년) 모형제작, ('23년) ISP수립, ('24년~) 구축운영
- (차세대 정보시스템 전환) 전자행정·공간정보(GIS) 정보시스템을 지능정보 기술 적용 재구축, 클라우드 이전 등 디지털 대전환 대응(~'26년, 142억)
 - * ISP용역('20년), 전환계획 수립('21년), 시스템 구축('22~'26년), 통합센터 이전('23년)

□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

- (문화유산 원형기록) 지정문화재 멸실 훼손 대비 3차원 원형기록 DB* 구축 및 개별 분산된 문화재 기록정보자원 데이터 세트** 구축
 - * ('12~'20년) 지정문화재 287건 → ('21~'22년) '경북/경남/제주', 3차원 DB 1,460건
 - ** ('20년) 국보, 보물 건조물 648건 → ('21년) 사적, 가옥, 민속마을 702건
- (문화유산 미래자원) 훼손·멸실 우려가 큰 비지정문화재* 기초조사 결과물과 매장문화재 유존지역** 위치, 현황정보 등 DB 구축
 - * ('20년) '대구/경북/강원' 공간DB 1만건 → ('21년) '서울/인천/경기' 공간DB 2만건
 - ** 문화유적분포지도, 지표·발굴조사구역, 폐사지 등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공간DB 15만건
- (문화유산 지식정보) 개별 생산·제공중인 왕실·해양·미술·건축·고고·기록·자연 등 분야별 문화유산 지식정보를 통합*, 디지털 집현전** 연계
 - * 15개기관 30개시스템 통합·연계방안 마련('21년), 분야별 문화유산 지식정보자원 발굴 및 연계DB 구축('22년~), 디지털 집현전 통합플랫폼 연계('23년)
 - ** 국가의 모든 지식정보를 통합,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(한국판 뉴딜, '20.7월)
- (맞춤형 정보서비스) 문화유산채널, 문화재연구소 등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국가문화유산포털과 연계*하여 대국민 제공
 - * (~'22년) 지능서비스 구현을 위한 ISP추진, 약 290만건 연계제공

□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보급

- (시대별 4차원 공간 조성) 문화유산 기록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, 인공지능기술과 연결하여 4차원 모델링을 통해 디지털 콘텐츠 제작·보급*
 - * 한양도성(덕수궁, 정동, 승례문, 서울역사, 환구단 등) 빅데이터 구축(80억원)
 - * 대표유산(세계유산·국보·보물 등) 디지털원형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(10건)
- (실감형 문화유산 콘텐츠) 문화유산에 디지털기술과 스토리텔링을 결합한 수요자 중심의 콘텐츠 개발로 문화유산 향유 방식 전환(한국판 뉴딜사업 반영)
 - (유형별 콘텐츠) 유무형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특화 실감콘텐츠 개발*
 - * 유무형유산(공간 시간여행VR, AR), 자연유산 힐링(미디어파사드 등) (37억원)
 - * 실감형기술을 활용한 조선왕릉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(14억원)
 - * 무형유산 전시미디어월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제작(11억원)
 - * 수증문화유산 조사현장과 출수 유물 디지털 콘텐츠 구축(10억원)
- (융복합 문화유산 콘텐츠) 실감형 콘텐츠와 실제 문화재를 결합한 문화유산 향유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으로 문화유산의 가치 재창출
 - (궁궐 야간조명) 궁궐에 다양한 디지털 요소(조명·영상·음향)를 결합하여 상상력을 자극하는 멀티미디어 공간으로 재창조*(13억원)
 - * ('20년) 창경궁 빛이 그리는 시간(9일) → ('21년) 창경궁 야간개방 시 '상설운영'
 - (세계유산 미디어 아트) 다양한 미디어기술과 IT 기술*을 활용하여 세계유산**의 새로운 향유 방식을 모색(45억원)
 - * 프로젝션 맵핑, 미디어 파사드, AR, VR, 인터랙티브 아트 등
 - ** 공주 공산성, 부여 부소산성, 수원화성, 보은 법주사, 익산 미륵사지

□ 디지털 문화유산 보급 거점 확보 및 강화

- (다양한 콘텐츠 활용기반) 문화유산 체험시설 등 향유기반을 다변화*함으로써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의 접근성과 안정성을 강화
 - * 지역을 찾아가는 디지털콘텐츠체험관 운영, 디지털콘텐츠 온라인전시관 구축(3억원)
 - * 디지털 콘텐츠 공유 및 참여공간 조성 등 문화유산 나눔방 운영(15억원)
- (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) 문화유산 디지털콘텐츠를 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핵심전시시설 건립 추진*(문화재청-행복청 협업**/세종시)
 - * (우리청) 전시·운영기본계획 수립, 전시콘텐츠 구축 및 영상관 운영
 - (행복청) 국립박물관단지 조성·건립공사
 - ** ('21.상) '기본계획·전시운영계획' 보완 → ('21.하) 디지털콘텐츠 전시 국내외 사례 수집 → ('21.9월) 설계공모 착수(행복청)

4 문화유산 분야 녹색 인프라 구축

□ 도심 속 유적지를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

- (역사유적공원 조성) 지역 도심 속에 위치한 문화유적지를 친환경 산책로나 탐방로 등을 갖춘 역사문화 도심공원으로 조성*하도록 유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토대 마련
 - * 상주 북룡동 유적 '시민문화공원', 서울 석촌동 고분군 유적공원
- (주민친화적 역사문화공간) 국가가 매입한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등을 체험·전시·관람 등이 가능한 주민친화적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*하여 국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마련
 - * 2019년부터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조치로 개발이 불가능한 보존유적 토지에 대해 국민참여예산으로 매입 추진 중
 - * 발굴 후 전시관으로 재탄생('18년)한 공평동 보존유적 사례를 전국 확산 추진

□ 문화유산 보관·전시·교육시설 등 저탄소 친환경 정비

- (문화유산시설의 저탄소화) 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,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등 문화유산시설 일제 정비* 및 친환경 시설 전환 기반** 마련
 - * 노후시설의 에너지 효율성 극대화 방안 마련
 - ** 시설물 신축시 저탄소 친환경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규정 보완 추진
- (문화재 기관 에너지 감축 개선)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*, 노후 시설물 개선, 고효율 기기 사용 등을 통해 온실가스·에너지 감축 추진
 - * (산업부) 신재생에너지 도입 지원(41억원), (대상기관) 전통문화대, 연구소 (본소, 나주, 경주), 무형유산원 / (한국에너지공단) 에너지진단 실시

□ 문화재 및 주변 관람환경을 에너지 친화공간으로 조성

- (문화유산 그린 리모델링) 지정·등록된 건축물은 에너지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고, 비지정문화재는 그린리모델링* 추진
 - * 에너지효율 개선, 온도·습도 조절 개선으로 실내공기질 향상, 결로·곰팡이 제거 효과
- (문화재 관람 편의시설)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으로서 관람객 편의공간 마련시 친환경·에너지고효율 시설*로 조성하도록 적극 지원**
 - * 전기차충전소 설치, LED 조명시설 교체 등 친환경 시설로 조성
 - ** 문화재보수정비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반영하여 원활한 예산편성·집행

1 문화유산의 탄탄한 관리기반 강화

□ 공고한 문화재 관리체계 및 중장기계획 마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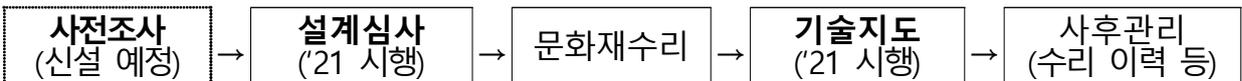
- (정책기반 강화) 근대유산, 자연유산, 수중문화재 등 분야별 법 제정과 함께 문화재행정의 원칙·기본방향을 담은 기본법 제정*으로 체계 공고화
* (용역) 기본법의 원칙·방향, 세부내용 및 부속법의 종류·범위 마련 등 연구(1.5억원)
- (문화재 보존·관리·활용 기본계획) 정책환경 분석과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토대로, 문화재정책 환경변화에 부합한 중장기 계획*(‘22.~’26년) 수립
* 환경진단,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, 핵심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 수립 등
- (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) 대내·외적 환경 변화와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한 무형문화재 미래발전 방안*(‘22.~’26년) 마련
* 무형문화재 보전·진흥 기본원칙 및 추진전략,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설정 등

□ 안정적 문화재 정책추진 토대 구축

- (권역별 각종계획) 신라왕경법(‘20.12월시행), 역사문화권정비법(‘21.6.월시행), 풍납토성법(‘21.6월시행) 제정에 따른 각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*
* 각 종합계획·기본계획에 따른 시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제시(‘21.1분기)
- (지자체 역량강화) ‘지자체 문화유산 관리역량 진단모델’ 도입, ‘지자체 문화재 관리역량 강화 정책연구’ 등 지자체 문화유산 보호·활용 역량 제고
* 지자체의 문화유산 관리현황 분석, 효율화 방안 검토 등

□ 문화재 수리체계 고도화로 원형보존에 기여

- (수리절차 강화) 문화재수리 시 「사전조사*·설계심사**·기술지도***」 등의 과정을 절차화함으로써 문화재수리의 전문성과 진정성 제고
* (사전조사) 문화재수리 전 사전조사 절차·기술, 조사 내용·방법, 수행자격 등 마련
** (설계심사) 설계심사관 사전심사 + 문화재수리기술위원회의 심의 → 수리범위·방법 등 결정
*** (기술지도) 중요 문화재수리 시 문화재의 양식·수리기법·범위 등 기술적 사항 지도·자문



- (동산문화재 보존처리) 동산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한 물리적·화학적 조치 등의 ‘보존처리’ 개념을 적용하여 동산문화재의 온전한 보존관리 실현
* ‘문화재수리법’에 ‘보존처리계획 수립·승인, 보존처리 수행 등’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, ‘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’ 제정 등 추진

□ 매장문화재조사 전문성 강화 및 발굴유물의 체계적 관리

- (조사기관 체계적 운영) 조사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*을 마련하고, 발굴조사의 특수성이 반영된 표준계약서 보급
* 관리감독 범위, 기본재산 관리 등 조사기관 체계적 관리업무 매뉴얼 마련·활용
- (조사요원 교육) 발굴조사 품질 제고를 위한 조사요원 교육* 의무화
* (방법) 한국문화유산협회 민간위탁, 전통문화교육원 교육 개설
* (내용) 안전교육(안전사고 예방), 기본교육(조사방법, 법령 등), 전문교육
- (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 조성) 철도 페터널을 비귀속 발굴유물의 권역별 보관시설*로 조성, 전시·체험 등 활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추진
* ('21년) 페터널 2개소 리모델링(충부권 대전, 호남권 전주 / 69.3억원)

□ 문화재 복원·정비 등을 통한 올바른 역사적 가치 구현

- (항일유산 임청각 복원·정비) 독립운동의 산실인 임청각의 복원·정비와 역사문화교육의 장으로서 기념관 건립(설계비/2.5억원) 추진
- (궁능 복원·정비) 변형·훼손된 궁능문화재의 온전한 복원정비로 궁능의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고 온전한 모습을 국민에게 공개

| | | |
|--------|-----|--|
| 궁 | 경복궁 | ◆ 광화문 월대 복원 등 역사광장 조성 추진('18~'23년 580억 '21년 46.5억) 등 |
| | 덕수궁 | ◆ 돈덕전 재건('17.~'22년), 흥천사명 동종 보호시설물 건립('21년) 등 |
| 종묘/사직단 | | ◆ 사직단 전사청 권역 복원('20~'21년), 안향청 권역 복원('21~'24년) |
| 왕릉 | | ◆ 파주 수길원 정자각 복원('21~'22년), 남양주 사릉 수복방·수리청 복원('21년) 등 |

※ 경복궁 복원정비('91.6.5)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및 기록물 전시(6월)

- (온전한 보수정비) 시대별 진성성을 유지한 문화유산 보수정비(6,749억원)
 - (세계유산) 한국의 서원·산사, 남한산성, 수원화성 등 128건
 - (사적, 국보·보물) 풍납토성, 김해 구지봉, 임청각 등 950건
 - (천연기념물·명승) 군산 선유도 망주봉, 서울 백악산 일원 등 437건
 - (근·현대유산)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362건

□ 권역별 연구조사 범위 확대에 따른 기반 구축

- (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건립)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지역 조사·학술 연구, 연구·교육·전시·아카이브 제공 및 국제교류 등 수행 기반 마련(10억원)
* ('21.~'23년) 총200억, 연면적6,700㎡, 4개층/ 인천 강화군/ ('21년) 설계 등
- (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) 전북권역 매장문화재 조사연구,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, 전시·체험·홍보 및 유적문화공원 제공(77억원)
* ('21.~'25년) 총299억, 연면적7,500㎡, 3개층/ 전북 완주군/ ('21년) 부지매입, 설계 등

2 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로 국민불편 완화

□ 문화재 보존·규제를 넘어 주민지원과 지역발전 도모

- (역사문화환경 지원)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 제한 및 생활 불편 등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* 강화 방안 마련
 - * 환경개선·복리증진·교육문화시설 등 지원 또는 세제혜택 검토 등 문화재보호법 개정 추진
- (손실보상 확대) 문화재보호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매장문화재법 보존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'토지보상' 적용 확대* 추진
 - * 당해 보존조치 토지 이외에 효용이 사라지는 그 주변 토지도 매입 가능
- (고도 주민지원) 복리증진사업, 주거환경 개선사업, 기반시설 개선사업 등 고도육성법 등에 따른 주민지원사업* 추가 확대
 - * 주거환경 개선사업(고도이미지 찾기 56억원), 이주대책(공산성 남문보호구역 정비, 부여 사비이주단지 조성 21억), 교육문화사업(주민활동 지원사업 2억원) 등
- (역사문화도시) 역사문화권정비법, 신라왕경법, 풍납토성법 등 역사문화 관련 법률 본격 시행으로 안정적·지속적 지역발전체계 구축
 - * 기존 고도(古都) 이외 가야, 마한, 탐라 등 고대 역사문화권 확대
 - 역사문화권 관련 법률들을 연계*하여 지원**을 강화하고 재정기반 확대
 - * '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'(문화재보호법), '고도육성지구'(고도육성법), '보존·관리구역'(풍납토성법)을 역사문화권 정비구역과 연계 설정
 - ** 역사문화권정비법에 따른 지자체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 및 운용을 통해 정비사업 재정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

□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 합리적 재정비

- (기준 정비) 문화재 인근 지역 주민의 불편 완화를 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기준 재정비*
 - * 허용기준 적정성 검토 및 허용기준 재조정(250개, 1.5억원)
 - 지구단위계획, 도시재생사업(SOC 등)과 연계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계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, 이를 토대로 주민지원 방안 마련(2개소, 4억원)
- (제도 마련) 대규모 개발행위 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'문화재 영향평가제도' 도입*으로 보존과 개발의 균형 모색
 - * 문화재 영향평가제도 운영방안 마련 연구(0.5억원)

□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확대 및 유존지역 관리 강화로 국민불편 해소

- (지표조사)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(기존 3만㎡ 미만) 국비 지원*
* '21년 예산 5억 증액 ('20년 350건/15.75억원 → '21년 460건/20.75억원)
- (발굴조사) 소규모 발굴조사비용 국비지원 대상 확대*
* ('18년) 연면적+대지면적 제한기준(121억원) → ('19년) 연면적 제한기준 폐지(146억원)
→ ('21년) 현지보존 조치로 개발 불가시 발굴조사 비용 지원(160억원)
※ 「발굴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 (20.11월)
- (유존지역)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밀지표조사* 와 정보 현행화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민간소유 보존유적지를 지속 매입**하여 관리 강화
* ('21년) 136.5km², 50억원 / 5년간 총 20,590km² 490억원
** 토지매입(10건/20억),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 유적 주변정비(6억원)
- (발굴지원 전문기관) 매장문화재 보존과 조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, 개발시 발굴조사 국비지원 및 유존지역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* 설치 추진
* 한국문화재재단 내 독립법인 형태의 발굴지원 전문기구 설립

□ 문화재수리업 기준 완화 및 지원체계 강화

- (진입장벽 완화) 철근콘크리트조 등 현대식 정비사업 시 진입제한 완화*와 복수의 문화재수리업 운영 시 사무실 구비 요건 현실화**
* (기존) 일반건설업 면허를 가진 문화재수리업자가 수행 → (개선) 문화재수리업자와 일반 건설업자가 협업으로 정비사업 추진
** (예시)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감리업을 겸업하는 경우 별도 사무실 불필요
- (임금직불제 시범도입) 시범사업(운현궁 아재당 재건공사/'20.~'21년)을 통해 임금직불제 도입방안을 마련('22년)하여 문화재수리종사자 직업안정성 강화
* ('21년) 시범사업 추진 후 임금직접지급제 도입방안 마련 → ('22년) 수리법 개정 및 「임금직접지급제 세분운영기준」 마련 → ('23년~) 임금직접지급제 시행
- (공제조합설립 지원) 문화재수리업자에게 보증·공제·융자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제조합설립 지원 방안 마련
- 문화재청-문화재수리협회 간 정책 소통 채널 마련 및 수시 운영
- 문화재수리업 발전을 위한 각종 공제사업* 시행
* 입찰보증·공사이행보증·하자보증 등 보증사업, 긴급 저리 융자 등

3 첨단기술과 현장 기반의 문화재 안전·방재 체계 강화

□ 첨단기술로 사전예방적 문화재 안전관리 선도

- (드론) 시·공간제약이 적은 드론기술을 문화재 현장에 적용, 안전 환경 저해 요인을 사전제거함으로써 빈틈없는 관리 체계 구현
 - 성주 성산동 고분군(사적) 등 9개소에 드론스테이션* 설치·운영(10억원)
 - * (주요기능) 자율주행 순찰, 자동출동, 재난영상 실시간 전송, 무인 이·착륙 등
- (조기인지기술) 건조물 문화재의 영상정보를 분석한 손상알림 기술*과 동산문화재 상시 관리구역 이탈알림 기술** 연구개발('21~'25년)
 - * (손상알림 기술) 다중 카메라 영상분석을 통한 자동변위 측정기술
 - ** (이탈알림 기술) GNSS(위성항법시스템) 센서를 이용한 도난 및 이동추적 기술

□ 현장별 방재자원 확충으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

- (방재시설 확대) 신규지정 목조문화재 등에 방재시설을 확대설치*하고, 노후시설의 현대화** 지속추진(노후 전기시설 교체, 방범설비 화소수 개선 등)
 - * 강릉 경포대(보물) 등 53건 37억원, ** 대구 동화사 대응전(보물) 등 46건 64억원
- (전문인력 강화) 국보·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재 중심으로 배치하는 한편, 궁능 현장에 방재인력 추가배치(안전경비원 539→582명, 궁능인력 302→321명)
- (돌봄사업 확대) 돌봄대상과 인력을 확대하고, 수행인력 전문성을 강화
 - * (대상) 8,126→8,665개소, (인력) 732→772명, (전문성) 관련 자격자 377→405명

□ 국민참여 및 유관기관간 협력을 통한 문화재 안전망 강화

- (전문가그룹) 재난안전, 첨단기술, 문화재 등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재 재난안전위원회(9명)를 운영하여 현장 전문가 중심의 상시 자문체계 마련
 - * 신규 지정 목조문화재 안전관리 실태조사, 재난안전 정책개발, 제도개선 자문 등
- (협의체구성) 중앙·지역문화재돌봄센터 간 협력기반을 구축하여 돌봄사업의 효율적 운영체계 강화('21.상)
 - 문화재보호법 제80조의4('21.6.10. 시행)에 따른 경미수리의 범위, 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심의·자문 실시* 및 관계자 간 소통기반** 마련
 - * 문화재 정책, 유형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중앙문화재돌봄위원회(가칭) 구성·운영
 - ** 돌봄협의체를 구성을 통한 현안 공유, 과제 발굴 등 의견 수렴 창구 개설
- (문화재 사범·매매) 문화재 도난, 불법매매 등 지능화 추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사범단속기능 전문성 강화 및 매매유통질서 향상
 - (사범단속) 수사기관 협업 강화, 수사 전문성 제고 및 과학화 추진 등
 - (감정·매매) 문화재 감정능력 고도화, 불법반출 및 매매 방지 강화 등

4] 굳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

□ 무형문화재 전승 기반 공고화

- (전승자 지속 확충) 전승 취약종목, 보유자 부재·고령화 종목 등 시급성 높은 종목*을 우선 총원하여 안정적 인적 토대 마련
* (보유자) 바디장, 나주셋골나이 등 / (전승교육사) 염장, 탕건장, 낙죽장 등
- (신규종목 발굴 확대) 전통생활관습·세시풍속·놀이 등 신규종목을 발굴하여, 생활 속 무형유산 재조명 및 문화정체성 제고
* 막걸리 빚기, 떡 만들기, 갯벌어로, 백일과 돌잔치, 한복문화, 추석, 율놀이 등
- (예우 강화) 보유자(단체) 인정서 수여주체를 격상하고(청장→대통령), 전승교육사의 명예보유자 전환과 지원 강화를 통해 위상 제고

□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지역문화 거점화

- (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) 전수교육관을 중심으로 예술인 행복주택, 생활SOC가 어우러진 지역 복합문화공간 건립 추진('21~'24년. 밀양·전주)
- (전수교육관 역할 증대) 다양한 국민 참여 프로그램*을 운영하고 전문 인력(문화예술교육사)을 확대** 배치하여 지역 문화향유권을 제고
* 54개소 대상 공연·체험 등 96개 프로그램 운영(8억원)
** ('20년) 13개 시도 46개소 53명 → ('21년) 14개 시도 51개소 59명
- (전승 인프라 확충) 주요 거점별 무형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국립 무형유산원 분원*의 연차적 건립 추진(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/2억원)
* 수도권, 영남권, 충청권 등 지역별 무형유산 진흥 활성화 구심점 역할 수행

□ 코로나19 대응 건강한 전승환경 등 마련

- (전승자) 공개행사 지원 확대(20→24억), 비대면 운영 지원*, 온라인 환경 역량강화 교육 등으로 적응력 향상과 부담 경감
* 전 종목 영상촬영 지원, 전승지원통합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공개
- (일반 국민) e-무형유산 배움터, 온라인 플랫폼(네이버TV·국악방송)을 활용한 공연 송출 등 비대면 콘텐츠 제공으로 사회적 문화수요 충족

1 치유와 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

□ 코로나 시대 국민의 힘이 되는 문화유산

- (쉼터가 되는 조선왕릉 숲길) 조선왕릉 내 숲길을 정비하여 국민의 안심 휴식공간을 조성하고,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으로 마음 치유
 - 왕릉생태자원을 활용한 숲길 조성 및 특색 있는 휴게공간 조성
 - * (기존) 파주 장릉 등 4개소, (신규) 태강릉 등 4개소(20.3억원)
 - 왕릉의 세계유산 가치를 재조명한 스토리텔링형 프로그램* 운영
 - * 조선왕릉길 활용프로그램 운영(2월~) 및 홍보자료 제작(8월) (1.5억원)
 - * 궁궐-왕릉 간 연계투어 개발 등 조선왕릉길 활용방안 연구(1.5억원)
- (자연유산 활용 힐링콘텐츠) '20년 명주짜기ASMR에 이어 힐링콘텐츠를 확대·제작하고, 고품질 자연유산 온라인 영상 제작·보급 추진
 - 명승 옛길별 정취를 체험·향유할 수 있는 지역 대표 프로그램*으로 개발하여 국민의 힐링과 지역 활성화 도모
 - * 명승 옛길 활용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('21년)

□ 비대면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유산 안심 향유

- (궁중문화 콘텐츠 제작) 다채로운 궁중 문화를 비대면 콘텐츠*로 제작하여 코로나 위기를 적극 대응하고 고궁의 세계화 기틀 마련
 - * 궁궐 활용프로그램의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·플랫폼 개발(8.5억원)
 - * 온라인콘텐츠(유튜브·SNS채널 등) 및 체험키트 제작, 영문 온라인콘텐츠 세계 홍보 등
- (비대면 입장시스템* 확대) 관람객 밀집방지, 매수표에 따른 대인접촉 최소화, 시간 단축 등 안전한 관람환경을 마련하여 코로나19에 적극 대응(5.6억원)
 - * ('20년) 4대궁, 서오릉, 용건릉, 선정릉 7개소 도입 완료
 - ** ('21년) 조선왕릉 5개소, ('22년~) 종묘 및 조선왕릉 등 10개소
- (로봇해설사* 도입) 국립고궁박물관 내 안내해설 및 방역기능을 갖춘 '인공 지능 로봇해설사' 서비스 도입**으로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
 - *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, 방역기능을 탑재해 손소독제 제공, 마스크 착용 안내 등 박물관 내 방역 보조까지 가능
 - ** ('21.4월) 로봇해설사 제작·콘텐츠 개발, (7월) 인공지능 강화를 위한 시범 운영 및 개선점 보완, 9월) 정상운영 / ('22년) 확대 운영

2 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

□ 취약계층별 문화유산 향유서비스 제공

- (동행, 문화유산) 취약계층별(청각·시각 장애인, 아동, 노인 등) 문화유산 서비스를 발굴하여 광역지자체별로 선정한 주관단체 주도로 프로그램 운영*
* 각 시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수혜 대상자를 선정하여 서비스 제공(3~12월)
- (궁궐 프로그램) 문화 소외계층을 궁궐로 초청*하여 향유기회를 제공하고, 수도권 이외 거주자·소외계층을 찾아가는 궁궐행사** 추진
* (소외계층 초청프로그램) 경복궁 별빛야행, 창덕궁 달빛기행 등 향유 기회 제공
(‘20년) 53회, 1,126명 → (‘21년) 60회, 1,500명
** (궁, 바퀴를 달다) 비수도권 지역을 방문하여 주요 궁궐프로그램 체험 기회 제공

□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문화유산 향유기반 조성

- (무장애공간 조성) 성별·연령·장애 등에 구애받지 않고,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재 관람시설 개선
 - (궁궐·왕릉)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
* 궁능 전체에 대해 연차별(‘21.~‘26년) 권역별 조성 계획 수립(‘21.1월)
 - (지역문화유산) ‘대전 회덕 동춘당’ 등 17개소 관람시설 개선
* 14개 지자체 / 10억원(국가지정 70%, 국가등록 50%)
- (장애인 문화유산 접근성 향상) 장애인용 리플릿과 점자감각책 제작, 맹학교 방문 서비스 등 장애인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반 마련
 - (장애인 배려 콘텐츠 제작·보급) 점자 리플릿*과 수어 해설 영상**을 제작·보급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유산 접근성 제고
* 시각장애인 점자(點字) 리플릿 수정 및 신규 제작·배포, 서오릉 등 4개소
** 경복궁-서울시립농아인복지관 협업으로 수어 해설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수어 해설 영상을 QR코드로 담은 청각장애인용 리플릿 제작·배포(1월)
 - (점자감각책 제작 확대)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도 함께 누리고 소통할 수 있는 ‘멀티미디어 점자감각책*’ 발간 확대** 추진(교육부 등 협의)
* 기존의 시각장애인용 점자책에 손으로 모양새를 느낄 수 있는 점자(물방울 방식)와 소리적 요소를 결합한 신개념 점자책
** (‘20년) 자연 → (‘21년) 고고 → (‘22년) 미술 → (‘23년) 건축 → (‘24년) 보존

3 다양한 문화유산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

□ '문화유산 방문 캠페인'을 대표적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

- (신규코스 개발) '20년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성과에 이어 3개 코스 추가
* 풍류의 길(강릉,양양 등), 가야의 길(고령,김해 등), 지질의 길(연천,포천 등)
- (특별공연) 문화유산과 공연이 함께하는 'Korea on Stage' 개최(3회/15억원)
- (콘텐츠 제작) 방문 코스별 방송콘텐츠 및 SNS 홍보영상 제작·방영*
* 문화유산 방문코스 및 지역문화유산 360° VR 실경 등 실감콘텐츠 제작(13편/13.5억원)
* 한류(문화, k-pop, 패션, 음식 등) 분야별 대표 알리미 활용, 국민참여형 영상 콘텐츠 제작(ex, 나 도 방캠 크리에이터)(25억원)

□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는 우리의 세계유산

- (세계유산 축전 확대) 재현행사, 전시, 공연, 강연, 워킹투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세계유산에 대한 체험 기회 확대 제공(2→4개소, 72억)
* (기존 2개소) 안동 하회마을과 도산·병산서원(9월),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(10월)
* (신규 2개소) 백제역사유적지구(8월), 수원화성(9월)
- (세계유산·기록유산 가치 향유 및 홍보) 세계유산 가치를 주제로 한 관람·공연 등 향유프로그램*과 전시·학술대회 등 대내외 홍보** 지속 추진
* 세계유산(수원 화성 등 20개소) 및 세계기록유산(조선통신사기록물 등 3개소) (20억원)
** 제주 다큐 및 고인돌 VR영상, 동의보감 온라인전시 등 홍보프로그램(40억원)

□ 궁중문화축전 등을 대표 활용프로그램으로 육성

- (궁중문화축전, 조선왕릉문화제) 사직단을 포함하여 축전의 완성도를 높이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대표 활용사업으로 자리매김
* 제7회 궁중문화축전 2회 개최 (봄 5.1~5.9, 가을 10.7~10.10) / ('20년 1회)
* 제2회 조선왕릉문화제 9월~10월중 개최(전년 대비 3개소, 8개 프로그램 추가)

□ 온전한 문화유산 향유를 위한 문화유산교육 확산

- (기반 마련) '문화유산교육 실태조사' 등 문화유산교육 기반을 마련하고, '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인증제', '디지털문화유산교육콘텐츠 개발' 등 추진
* ('21.상) 인증제 시범운영, ('21.하) 디지털교육 프로그램 개발
- (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) 일반 국민 대상 '전통공예 교육프로그램' 운영 등 급증하는 문화유산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('21.하 연구용역)

4 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

□ '지역문화유산' 활용사업으로 가치 재조명

- (야행 프로그램 확대) 문화재가 밀집된 지역을 거점으로 지역별 특색이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'문화재 야행' 확대
* ('20년) 수원 야행 등 36개소/ 50억원 → ('21년) 강릉 야행 등 42개소/ 63억원
- (프로그램 지속 발굴)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 다양화
* ('20년) 계룡 사계고택 등 349개소/132억 → ('21년) 광주 무양서원 등 358개소/132억

□ 주민이 참여하는 문화유산 기업 육성·지원

- (마을기업 육성) 지역주민이 주도하여 문화유산을 보존·활용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'문화유산형 마을기업' 육성 전략* 마련
* 문화유산 보존·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활동 지원 내용·방법·근거 등
* 마을공동체 주도의 통합서비스 제공(문화유산 해설+관광상품 개발·판매+시설이용)
- (지역자산 활용) 근대건축물 등 보존·활용과 주민 참여,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연계함으로써 지역발전 도모 추진

□ 문화유산 보호 민간참여 기반 강화 및 협력체계 활성화

- (문화재지킴이) 지역주민·청소년·청년 다양한 등 지킴이활동* 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 운영으로 민간 참여기반을 강화하고, 문화유산 사회공헌(기업 등)과 연계**한 협력체계 및 활동 활성화
* 권역거점센터 운영(수도권·충청·영남·호남), 문화재보호 활동지원(20개), 지킴이 교육(60회 이상), 청소년지킴이학교(20개), 청년유네스코지킴이(125명)
** 기업 등 민간자원(기술·재원·인력)을 활용한 문화유산보호 후원, 민관협력
- (문화유산 국민신탁)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하고 국민신탁 활동기반*을 확대하며 회원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민 참여 활성화
* 지역거점 지부(충청·영남·호남) 운영 및 시민모금캠페인, 청소년볼unteer 등 지원·협력
- (사회적기업 참여기반 확대) 문화재형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, 사업 개발비 지원 및 우수사례 발굴·공유 등으로 다양한 주체의 활동기반 강화
* 문화재형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사업개발비 지원(10개소, 5억원)

1 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 강화

□ 세계유산 등재 확대 및 경쟁력 강화

- (등재 범위 확대) '한국의 갯벌' 등 자연유산을 세계자연유산* 으로 등재하는 등 세계유산 등재 분야 확대** 및 등재 기반 조성
 - * (7월) '한국의 갯벌', 제44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결정 예정 (한국 세계유산 14건 중 자연유산은 1건 '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('07년)')
 - ** (2월) '가야고분군' 등재신청서 제출 / (9월경) 현지 실사 예정
- (등재 후보군 확보) 국내외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규 후보군을 발굴함으로써 등재후보군의 질적 제고, 양적 확대를 통해 등재 경쟁력 강화
 - * '20.12월 기준 잠정목록 13건, 우선등재목록·등재신청후보·등재신청대상 지속 발굴
 - ※ (등재신청단계) 잠정목록→우선등재목록→등재신청후보→등재신청대상→등재신청
- (등재유산 발굴) 유네스코 사전자문* 등을 통해 '충남 내포권역의 천주교 유산군'의 잠재적 OUV 설정과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세계유산 적극 발굴
 - * 세계유산 등재신청 과정의 시행착오를 방지하기 위해 유네스코와 국제기구가 등재신청서 작성 전반에 대한 실시하는 자문

□ 세계유산의 합리적 보존·활용 체계 구축

- (세계유산법 시행)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·활용을 위한 종합계획, 유산별 기본계획, 연도별 사업계획 등 수립, 세계유산지구* 지정 및 세계유산 보존협의회 구성·운영 등 합리적 보존·관리·활용 체계 구축('21.2.5. 시행)
 - * 세계유산지구, 세계유산구역(세계유산에 등재된 구역), 세계유산완충구역(주변구역)
- (세계유산영향평가 국내 적용)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「세계유산영향평가*」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국내 기준** 수립
 - * 잠재적 개발행위가 세계유산의 가치, 속성, 외관, 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
 - ** 영향평가 실시 여부 기준 및 실시 후 유네스코 협의 기준 등
 - ※ (문화재현상변경) 거리, 개발의 종류 등에 따라 허용기준을 설정, (세계유산 영향평가) 유산의 가치, 속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

□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내 역할 확대 및 영향력 강화

- (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설립*) 세계유산의 해석과 설명에 대한 국제적 원칙 연구, 역량강화, 정보화 등 수행 및 갈등 조정·해결 지원**
 - * ('19년) 한국 유치 승인(유네스코 총회), ('20년) 근거법령(세계유산법) 개정 및 설립협정 승인, ('21년) 법인 설립 예정(12월)
 - ** ('21년) 군함도 등 세계유산해석 웨비나 시리즈 개최, 중장기계획 수립,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등 규정 정비
- (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위원국) 위원국으로 선출됨('20.~'24년)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물론 무형유산 분야의 지원* 및 영향력 확대
 - * 무형유산협약 종합성과평가체계 교육자료 개발 지원('21.하) 지원, 무형유산 교육과 지속가능발전 교육프로그램 실시(베냉, '21년)
- (국제기구 협력 확대)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(ICCRROM)와 협력 사업*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국제 네트워크 강화
 - * '문화재청-ICCRROM 아시아지역 문화유산 보존 신탁기금' 확대(2.3억→3.6억), 아시아권 문화유산 보존 국제연수사업(8월), 세계유산 보존관리 교육과정(8월/11월)
- (문화유산 협력 국제기구 신설) 아세안 국가와 문화유산 분야 교류·협력 강화를 위한 '한-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*' 신설 추진**
 - * ICT활용한 문화유산 보존·복원, 문화재 환수 등 국제의제 공동대응 등
 - ** 기구 설립 자문위 구성→아세안 사무국 협의, 개별 회원국과 라운드 테이블 개최

□ 해외 문화유산 보수·복원 및 기술 지원 확대

- (대상지역 확대) 파키스탄 간다라 문화유산 활용 콘텐츠 제작을 지원함으로써 동남아시아·중앙아시아에 이어 서아시아지역까지 확대
- (문화유산 보존역량 강화 지원) 시설·장비 등 하드웨어와 매뉴얼·기술 등 소프트웨어 지원을 통해 대상국의 문화유산 보존역량 강화
 - * 우즈베키스탄 유물 보존처리 및 궁전벽화 보존시스템 구축 지원
 - * 미얀마 바간 역사도시 시범마을 사업, 라오스 흥낭시다 사원 주신전 복원 등 (2차사업)
- (전통문화 교육·연수 지원사업) 개발도상국 문화유산 보존·관리·활용 인력 전문성 강화 사업*을 통해 국제공헌 활동 지속 확대
 - * 앙코르유적 코끼리테라스 등 캄보디아 문화유산 ODA 연수, 석재보존조경건축 등 전문가 파견

2 세계 속 우리 유산의 가치 확산

□ 국외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

- (국외문화재 DB고도화) 국외문화재 각종 정보를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국외문화재 DB 기능 개선 등 고도화 추진*(2차)
* ('20년) 검색기능 강화(4억원), ('21년) 그룹웨어 연동 및 기존 DB이전(3.3억원), ('22년) 시스템 안정화(1억원)
- (국외문화재역사관(가칭) 설립) 문화재 약탈과 굳건한 환수의 역사 정립으로 국난극복의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역사관 설립 추진*
* ('21년)기본계획수립(1억원) : 입지선정, 전시콘텐츠 준비 및 기본방향 등
- (국외 반출사 연구) 시대별, 유물별, 반출 유형별 국외소재문화재 국외 반출사(史) 조사·연구를 통해 문화재 환수 전략 수립*에 활용
* 국외소재 문화재 반출사(史) 선행연구 조사, 전문가 포럼 구성, 중장기계획 수립
- (국외문화재 가치 향유 프로그램) 국외문화재를 주제로 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 및 프로그램* 운영으로 우리문화재의 가치 확산 및 홍보** 강화
* 국외문화재 관련 실감형 콘텐츠 제작(11월/3억원), 청소년 대상 환수 문화재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 운영(8월), 국외문화재 토크 콘서트(11월)
** 언론사 기획연재(연중), 환수문화재 기념우표 제작 (우정사업본부, 연중)

□ 다각적 국제교류 활동으로 우리 문화재 홍보 강화

- (문화재 가치 확산) 국외 소재 우리문화재의 보존·관리를 지원*하고 국외문화재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국가간 협력**을 강화
* 한-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, 왕실예술역사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 보존 처리 지원 및 기획전(9월)·학술심포지엄 개최(10월)
** '문화재청-미국 국토안보수사국(HSI)' 간 국새·어보 인식 개선을 위한 협력(상시)
- (교류협력 다변화) 국외문화재 환수·활용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*하고 다층적 민간단체 네트워크 및 지속적 홍보로 우호적 환수여건 조성
* 환수·활용·조사 기여자 예우프로그램 마련 및 운영(연중), 도난 국새어보 홍보 동영상 제작·배포(연중), 민간단체 지원(3월) 한일 전문가 세미나 등(하반기)
- (국외부동산 문화재) 국외부동산 문화재를 외국 현지에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 브랜드화 거점*으로 삼아 각종 홍보 및 안내 활성화**
* 주미대한공사관, 안창호유적지, 서재필기념관 등 재외 역사유적
** 미주 독립운동, 외교, 이민사 등 우리역사 관련 지점에 BI(brand identity) 부착 등 홍보 사업, 안내 지도 제작, 현지 문화재 등록 가이드 제작·배포 등

□ 'K-무형유산' 브랜드 가치 제고로 '신한류' 확산

- (콘텐츠 개발·보급) 한류의 원천인 전통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고품격 공연·전시를 통해 우리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 전파
 - 무형유산 한류공연 'K-무형유산 페스티벌'(동남아 1개국/10월/6억원),
 - 한국-벨기에 수교 120주년 기념 '한국무형문화재주간'(벨기에/7~8월/4억원)
 - 재외동포 무형유산 현지 강습(카자흐스탄·우즈베키스탄/하반기/1.6억원)

※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국내 행사 또는 비대면 운영 등 탄력적 추진
- (거점별 인프라 구축) 무형유산을 통해 지속적 한류 확산을 이끌어가기 위하여 'K-무형유산 한류체험관' 건립 추진*
 - * ('21년) 건립계획 수립, ('22~'26년) 설계 및 건립 /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동편
 - (구성) 연중 상시 무형유산 체험이 가능한 디지털영상관, 온라인 생방송과 영상 제작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스튜디오, 개방형 수장고, 무형유산 전문 도서관 및 아카이브 등
- (K-무형유산 바로알리기) 우리 무형유산의 차별적 가치와 국제적 이해도 제고를 위한 국내외 다양한 홍보*
 - * 아리랑, 김치담그기, 농악, 씨름, 판소리 등 주요 무형유산 중심으로 추진
 -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종목의 해외 홍보영상을 제작·배포하고, 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거점과 연계, 김치담그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

※ 영국 국립도서관 웹아카이브에 세계김치연구소의 '김장프로젝트'가 공식 등재되는 등 우리 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고조('20.12월)

□ 다양한 '문화재 한류' 발굴 및 실현 기반 마련

- (한복 및 한복문화의 가치 발굴) 한복의 정의와 전승 범위 등 연구를 통한 문화재적 검토와 한복문화의 차별적 가치 발굴·확산 토대 구축
 - * ('21.12월) '코리아 인 패션' 프로젝트 진행 (문화재청-한국문화재단)
- (우리 문화재 국외전시) 일반동산문화재 국외전시로 우리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고 반출절차 개선* 및 국내외 협력강화** 등 '문화재 한류' 실현 방안 마련
 - * ('21) 문화재 국외반출을 위한 문화재청-관세청 연계시스템 시행
 - ** 국외소재 박물관 등 한국관 지원 방안 및 국가간 협조체계 강화 및 적극 홍보

3 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강화

□ 남북간 문화재 교류 활성화 대비 기반 조성

- (교류역량 강화) 남북교류협력의 안정적·체계적·지속적 추진을 위해 법적·정책적 기반*을 마련하고, 남북 연구네트워크 강화** 추진
 - * ('21.상) 남북 교류협력사업 범위 확대, 지원근거 등 마련(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), 남북 교류협력 의제 개발 워크숍 추진
 - ** ('21.9월) 북측 명승자원 정보구축 및 국내외 연구네트워크 구축 학술대회 개최, 『북측 민족유산의 이해와 보존관리』 정책포럼 학술총서 발간
- (교류방식 다변화) 남북간 직접 교류방식* 이외에도 ICT 기술을 활용한 간접 교류방식**으로 남북 교류협력사업 확대 추진
 - * 개성만월대 남북공동조사(9차) 추진을 위한 남북실무협의 제안('21. 하)
 - ** 개성만월대 공동조사 성과를 토대로 디지털복원 시범사업 실시('21년, 3억원), DMZ 실태조사 결과 반영한 한반도 DMZ 디지털 플랫폼 구축 연구('21년, 2억원)
- (남북교류 토대 강화) '정부-지자체-민간 전문가' 유기적 연계*로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한 사업발굴, 타당성 검토 등 교류협력 기반 준비
 - * 문화재청-지방자치단체(접경지역, 문화재교류추진) 실무협의회 운영(3회)
 - * 남북문화유산 교류협력 개선을 위한 남북문화유산 정책포럼 개최(4회)

□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 토대 구축 및 국제사회 지지확산

- (국내적 노력) 2020년 DMZ 실태조사 등 기초연구에 이어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를 위한 자료 수립, 관리방안 마련 및 심화연구 추진
 - 유산·완충구역 설정, 지정·등록 등 보호체계 수립방안 마련 연구
 - * DMZ 일원 지정·등록 현황 검토 및 보호체계 방안 연구('21.상/0.7억원)
 - 문화·자연유산 실태조사(8~18차, 30개소) 결과에 따른 정밀조사연구 추진
 - * 실태조사 추진 완료('20년~'21.7월, 총18차 41개소)에 따른 결과보고서 발간('21.하), 파주 대성동 고고탐사 및 시발굴조사('21.3월~11월), 태봉 철원성 시범조사 추진
- (국제적 노력) DMZ 세계유산 남북공동등재를 위한 북측의 협력을 유도하고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 홍보를 위해 유네스코* 적극 활용
 - * 북측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를 위한 유네스코신탁기금 조성('21~'25, 연간 10억원)
 - *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에 따른 DMZ 국제워크숍개최('21.6월 중국에서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예정 / 120여개국 참여)

□ **문화유산 현장 방역 대응체계 강화**

- (대응체계) 코로나19 신속 대응을 위한 비상상황 근무체계 유지*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관 자체 대응 및 소통 강화**
 - * '코로나19 대책 상황실' 24시간 근무체계 지속 운영
 - **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자체 대응 강화를 위한 기관별 매뉴얼 개선
 - 상황 변화 긴급 전파, 자료 공유를 위한 기관 소통창구 개설
- (점점 개선 강화) 코로나19 방역관리 기관별 자체점검 전자행정 시스템 구축, 주기 점검 등 점검방식 개선 및 집중 점검* 강화
 - * 집중점검 및 합동점검 대상 확대 : 문화재청 소속 기관 → 위험도가 높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활용·교육·수리 현장

□ **탄력적인 코로나19 대응지침 운영 및 신속한 피해 구제**

- (대응지침)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지침과 연계, 상황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'문화유산 현장 대응지침' 개편*
 - *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시 기관별 자체 대응 항목 신설, ② 중대본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수칙 연계 공통지침 등 조정, ③ 다중이용시설 세분화 시설별(문화재 내 카페, 화장실, 장애인시설 등) 방역지침 마련
- (신속한 피해 구제) 문화유산 코로나 피해 조사 횟수 및 범위를 확대*하여 코로나로 인한 문화유산 피해 적기 해소로 피해 최소화
 - * ('20년) 피해 및 애로사항 조사 3회, 문화재 업계 및 종사자 등 대상 → ('21년) 피해조사 분기별 실시(긴급 상황 발생 시 수시 실시), '20년 조사대상 +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, 민간단체 추가

□ **감염병 상시 대응을 위한 비대면 환경 구축**

- (비대면 환경 구축) 문화유산 관람객과 종사자 모두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고 언제든지 대처 가능하도록 비대면 환경 기반* 구축
 - * 발열 체크 시스템을 전 기관 확대·운영, 궁궐 비대면 검표시스템(5개소) 마련, 전통문화대학교 교육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및 온라인 강의·영상회의시스템 구축
- (비대면 콘텐츠 확대) 대면-비대면 상시 전환이 가능토록 문화유산 보존관리 및 전시, 관람, 교육 등 활용 비대면 콘텐츠* 확충
 - * 박물관 전시 및 궁능 관람 VR 콘텐츠, 국보·보물·사적 및 천연기념물 등 실감형 콘텐츠, 문화유산 온택트 학습 콘텐츠 등 확대 제작, 보급

2021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 인포그래픽

01

문화유산의 미래가치 창출

문화재 정책 추진체계 고도화

• 문화재 보편적 가치 확산 및 포괄적 보호체계 제도화

- 문화재 지정번호 제도 운영방식 개선
- 비지정문화재까지 포괄한 역사문화자원 조사
- 대구·경북·강원지역 2.6만 건 • 서울·인천·경기 1만 건

•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재 영역 다변화

- 자연유산법 제정 추진, 국립자연유산원·전통조경자원센터 건립 추진
- 위생보건·항일독립·미군기지 등 다양한 근현대유산 조사 발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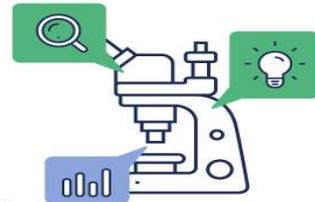
문화유산 신산업 발굴 및 산업화 기반 마련

• 문화유산 연구개발 (R&D)

- 11개 기술 | 79억원
- 진단 분석, 재해·재난대응, 디지털 트윈

• 전통 단청 시범사업,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추진

• 문화유산 펀드 운영기반 마련 및 문화유산 산업분류체계 수립



문화유산 보존관리의 디지털기반 전환

• 디지털 기술 기반 과학적 보존관리체계 구축

- BIM기반 건조물문화재 수리이력 통합관리,
-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, 주변환경 정비

• 문화유산 데이터 댐 구축 및 서비스

- 문화유산 원형 기록 DB
- 287건 ▶ 1,460건
- 왕실·해양·미술·건축 등 지식 정보 DB
- 국가문화유산포털 연계 서비스

•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·보급

- 한양도성, 세계유산 등 주요문화재 데이터 구축 및 콘텐츠 제작
- 실감콘텐츠 개발·보급, 세계유산 미디어 아트 등



일상생활 속 문화유산 인프라 녹색 전환

• 도심 속 유적지를 지역주민 친화공간으로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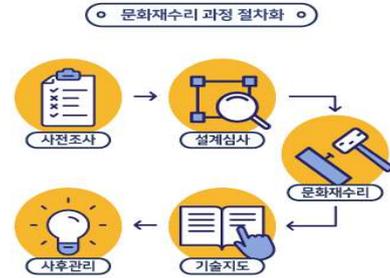
• 문화유산시설 및 기관 저탄소 친환경 정비, 그린 리모델링 조성 지원



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전승

문화유산 관리기반 강화

- 문화재수리 과정 절차화
 - 사전조사 ▶ 설계심사 ▶ 문화재수리 ▶ 기술지도 ▶ 사후관리
- 페터널을 발굴유물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
 - 2 개소
- 문화재 복원·정비로 역사적 가치 구현
 - 항일유산 임청각 복원정비 및 기념관 건립 추진



문화재 규제 합리화 및 주민지원 확대

-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주민 지원 및 매장문화재 관련 보상 근거 마련
-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기준 합리적 재정비
 - 250 개
-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확대 및 전문기관 설립
 - 모든 민간시행 지표조사 비용 지원
 - 350건 16억 ▶ 460건 21억
 - 소규모 발굴조사 비용 지원 확대 | 민간소유 보존유적지 매입
 - 146억 ▶ 160억 | 10건 20억



첨단기술과 현장 기반의 문화재 안전·방재 체계 강화

- 드론 스테이션 설치로 자율주행 순찰, 자동출동, 재난영상 실시간 전송 등 안전방재 고도화
 - 동해 무릉계곡 등 9 개소 (명승, 사적 등)
- 현장별 방재자원확충으로 신속대응체계 강화
 - 전문인력 841명 ▶ 903명
 - 방재시설 확대설치 53 건 | 노후시설현대화 46 건



균건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 전승

- 취약종목 지속 확충 및 신규종목 발굴 확대
 - 막걸리 빚기, 떡 만들기, 갯벌어로, 백일과 돌잔치 등
- 보유자·단체 인정서 수여주체 격상 및 전승교육사 교육권한 부여
 - 문화재청장 ▶ 대통령
- 전승교육관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확대
 - 13개 시도 46개소 53명 ▶ 14개 시도 51개소 59명
- 코로나19 대응 전승환경 개선
 - 전 종목 영상촬영 지원, 온라인 환경 역량강화 교육



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유산

마음 치유·회복을 위한 문화유산 활용 확대

• 코로나 시대 국민의 심이 되는 문화유산

- 심터가 되는 조선왕릉 숲길 조성
4 개소 ▶ 8 개소
- 자연유산을 활용한 힐링콘텐츠 제작·보급 추진

• 비대면 서비스로 문화유산 안심향유

- 궁중문화 비대면 콘텐츠 제작·보급
- 비대면 입장시스템 확대
7 개소 ▶ 12 개소
- 국립고궁박물관 로봇해설사 도입



배려 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향유환경 개선

- 궁능 유니버설 디자인 무장애공간 조성계획 수립
- 문화유산 점자 리플릿 및 수어 해설영상 배포,
점자 감각책 발간 확대(21년 고고분야)



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제작 및 문화유산교육 확산

• '문화유산 방문 캠페인' 대표 문화유산 관광자원으로 육성

- 풍류·가야·지질의 길 등 3개 신규코스 개발, Korea on Stage 공연 등

• 궁중문화축전 확대 | 세계유산축전 확대

연 1 회 ▶ 2 회 | 3 개소 ▶ 4 개소

조선왕릉문화제 확대

7 개소 17 개 프로그램 ▶ 10 개소 28 개 프로그램

• 일반 국민 대상 전통문화사회교육과정(전통문화체험과정) 운영



지역주민과 함께 가꾸고 만드는 문화유산

•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지속 발굴 및 확대

385 개소 ▶ 400 개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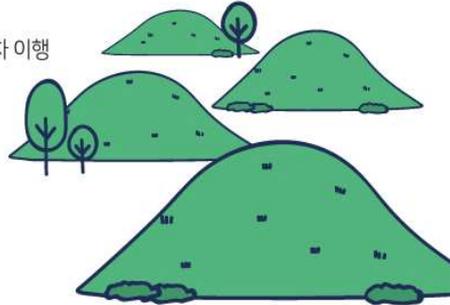
- 권역별 문화재지킴이 거점 마련(수도권·충청·영남·호남) 및
문화유산 국민신탁 활동기반 확대(충청·영남·호남)



세계와 함께 누리는 우리 유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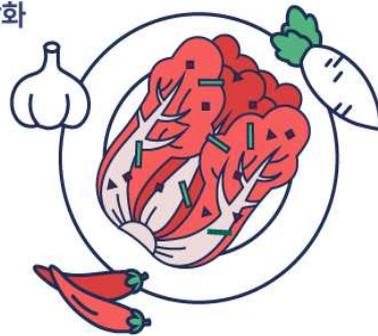
우리 유산의 세계 속 위상 강화

- 세계유산 등재 지속 확대
 - '한국의 갯벌' 등재 추진, '가야 고분군' 등재신청서 제출 및 심사 절차 이행
 - 등재후보군 확보 및 발굴 추진(충남 내포권역 천주교 유산군 등)
- 세계유산 국제해석센터 설립·운영, '한-아세안 문화유산 협력기구' 신설 추진
- 해외 문화유산 보수·복원 지원 확대
동남아시아, 중앙아시아 + 서아시아 (파키스탄)



세계 속 우리 유산 가치 확산

- 국외 소재 우리 문화재 보존·관리 지원 및 국가간 협력강화
 - 국외소재문화재 브랜드 정체성(BI) 활용사업
- K-무형유산 브랜드 가치 제고
 - K-무형유산 페스티벌 개최, 김장 문화 등 K-무형유산 바로알리기
- 문화재 한류 실현 기반 마련
 - 한복 및 한복문화 가치 발굴, 우리 문화재 국외전시



문화유산 분야 남북 교류협력 안정화

- 남북 연구네트워크 강화로 남북교류협력 추진 여건 마련
- DMZ 세계유산 남북 공동등재 추진
 - DMZ 실태조사, 잠정목록 등재추진, 관리방안 마련

